

월출산 자락서 국립공원 미래 '청사진' 그렸다

'달빛 넘나들이'...국내 첫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성료' 국제학술회의에서 보호지역 생태계 활용 '로컬 미래' 모색

국내 첫 국립공원박람회인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소중함과 국립공원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읍 영암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월출산,

달빛 넘나들이'를 주제로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문화 가치를 전파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모색했으며 어린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암군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월출레인지 ▲액티브 어드벤처 ▲월출산 예코 공작소 ▲월출산 스카이벨론 ▲기마순찰대 등이다.

박람회장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월출레인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1일 2회 100명을 현장에서 모집·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액티브 어드벤처'는 월출산 자락 아래 펼쳐지는 대형 캘린디어바운스로 가로 43m 세로 15m의 코스를 돌며 아이들이

모험심을 증진하고, 운동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압박등반까지 체험할 수 있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기마순찰대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무등산국립공원은 탄소중립 방 탈출 게임을, 지악산국립공원은 탄소중립 보드게임을, 계룡산국립공원은 미디어체험을 각각 이동탐방안내소에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국립공원 깃대종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깃대종 포토존'도 운영돼 월출산국립공원 대표동물인 남생이, 계룡산국립공원의 호반새, 속리산국립공원의

하늘다람쥐,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등 깜찍한 캐릭터들이 어린이들 추억의 앨범에 기록됐다.

지난 2일에는 영암국민체육센터에서 '로컬의 미래: 국립공원, 자연공존지역,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보호지역의 가치'로 문을 열고, 국내·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사례를 공유, 200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

BF) 보호지역 목표와 각국의 정책 방향 소개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보호지역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전문가들의 국제학술회의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의 전국화, 세계화의 기초를 닦겠다"며 "보호지역을 가꾸는 일에 청년과 여성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깊이 논의하고, 보호지역의 생태계를 활용한 로컬의 새로운 미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건조한 가을철 산불 '제로화' 목표 총력

감시 인력 투입·드론·CCTV 등 실시간 대응 체계 가동

강진군이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산불 조심기간 동안 군은 진화대 12명과 감시원 38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과 입산을 철저히 통제하며, 산불감시원 38명을 산불 위험 지역에 상시 배치하고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진화대 12명은 출동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진화 장비와 차량은 사전 점

검을 통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민과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군민들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강진군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이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2024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2022 분재대전 작품전시(위)와 지난해 분재대전 작품 전시 전경. <신안군 제공>

화분 위 펼쳐진 한복의 동양화...신안군, 분재대전 개최

8-17일 1004섬 분재정원 일원...애호가 출품작 등 총 500여점

신안군이 대한민국 분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분재대전을 개최한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1004섬 분재정원에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2024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열린다.

이번 대전은 신안군 분재정원에서 보유한 작품 200여점과 분재 애호가들의 출품작 200여점 등 총 500여점을 선보일 예정으로 분재에 대한 지식 교류와 분재 예술의 아름다움, 수준 높은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이 밖에도 신안군 특별전, 분재 조경수 특별전을 같이 진행해 분재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분재 교실, 소품 페어전 등이 열린다.

특히 올해 행사는 미주분재연맹 회장이자 세계분재우호연맹(WBFF) 부회장인 잭 서스틱(Jack Sustic)을 포함한 미국분재연합회 임원 13명이 참석한다.

서스틱 회장은 과거 미국에서 열린 세계분재대전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았



으며,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분재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분재계의 주요 인물

이다.

서 회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분재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분재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스틱 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신안군 분재정원을 방문, "1004섬 분재정원 보다 아름다운 분재원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다.

또한 "신안군 세계분재대회 개최에 힘을 보태고, 한국의 분재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전이 분재 예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안군 관광 활성화와 분재문화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시가 최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이해·신뢰 바탕으로..."

나주시, 외국인 고용농가 인권교육

근로 계약·숙소 등 정보 제공...안정적 인력 확보 지원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입국 후 절차, 근로 계약, 숙소 등 농가 주의사항과 노동자 근로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 32명, 2023년 358명, 2024년에는 725명을 배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인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에 농가 이용 접근성을 높인 농촌인력증가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인력증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시농부 농촌일손보태기 등 정책을 통해 농가 인력 확보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무안 돌봄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생긴다

郡·가족센터 위수탁 협약...복합문화센터 1층 이달 중 개소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가족센터와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여성가족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인 '신한 꿈도담터' 공모사업에 지난해 9월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공간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받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1층에 이달 중 개소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장소 제공과 소통 및 육아 정보를 나누고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에 첫 공동육아나눔터가 문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구



축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목포해수청, '아름다운 등대' QR 서비스

등대 역사·주변 명소 등 등대 외벽 스텐부식현판 정보 제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유·무인 등대 10개소를 아름다운 등대로 선정하고 QR코드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지리·위치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등대 외벽에 스텐부식현판 보태기 등 정책을 통해 농가 인력 확보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

면 목포해수청 누리집의 아름다운 등대 게시판으로 연결돼 등대의 역사, 주변 관광 명소, 찾아오는 길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서비스 시행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등대해양문화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창승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이번 아름다운 등대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육산도항 방파제 등대

등대가 항로표지 역할을 넘어 국민들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등대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 치매 부담 툄다

소득 기준 120%→140%이하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시행

완도군은 3일 "치매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120% 초과에서 140% 이하 대상까지 지원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치매 치료제 상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이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치매 환자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치매안심센터(061-560-58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